



5면

전주시, 가나자와시와 국제협력 강화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음 9월 25일) 제338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인 5000명의 합성 “새만금 예산 완전복원”

전북 5개 단체 공동주최  
전북인 총결기대회, 국회서

“새만금은 국가사업  
사업 추진 차질 없어야  
이차전지 특화 지정으로  
SOC 확충 필요한 때”  
500만 전북인의 뜻 전달



7일 국회의사당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500만 전북인 총결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전북인들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외치고 있다. <사진=새만금 비상회의 제공>

새만금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전북인 5,000여명의 합성이 국회의사당에 울려 퍼졌다. <관련기사 3면>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가칭)새만금 정상화 재정전북인 시군 비상회의, 전북도의회 등 5개 단체는 7일 국회의사당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500만 전북인 총결기대회를 열어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무원 등 도의회 의장 전북 국회의원, 행사를 준비한 윤석정 상임대표,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임영배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장, 박종길 (가칭)새만금 정상화 재정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의 대표 등이 선두에 섰다.

전북도의회 의원 릴레이 단식 투쟁에 이어 전주에서부터 280km를 달려 온 박정규 의원 등 도의원 일행도 함께 했다.

5개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은

33년간 추진돼 온 국가사업으로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이 차질을 빚어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신산업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며 SOC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새만금개발사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새만금 예산의 완전 복원을 촉구했다.

전주에서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으로 결기대회 현장에 도착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새만금 쟁버리 파행 이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모든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보복성 예산”이

라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함께 새만금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새만금예산 복원이 예산안 통과가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함께 참석한 강훈식 예결위 간사도 국가사업법 위반 예산불균형 지역균형발전 역행은 문제 삼으며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미이크를 건네받은 김관영 도지사는 큰절로 감사함을 전한 후 “그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지만 도민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다”며 “지난 두달 반 동안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을 만나며 전북도민의 아픔, 분노, 절규를 전했다.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발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어 “새만금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으로, 도민과 그 성장통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무소의 뿔처럼 한발 한발 이겨내서 모든 분들과 함께 반드시 삭감 예산

보다 더 많은 예산 받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운덕·김성주·김수홍·한병도·신영대·윤준병·이원택·안호영 의원 등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000여명의 전북인들은 “새만금 예산 정상화로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를 살려내고, 전북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서 교육감, 올 공약 이행 목표를 돌파

9월 말 기준 평균 47.1% 안전·자치 등 초과 달성

서거석 교육감의 2023년 공약 이행률이 목표치를 넘어섰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서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47.1%로 2023년 목표율인 4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말과 대비해서도 6.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미래·책임·안전·자치·협력·공공체 등 6대 분야 33개 주요정책, 7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분야별 이행률은 미래 39.3%, 책임 35.7%, 안전 62.7%, 자치 48.6%, 협력 60.4%, 공공체 42.0% 등으로 특히, 안전분야와 자치분야, 협력분야, 공공체분야에서 목표율을 초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지원청내 협력지원센터 운영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확충 △식생활관 환경 개선 △초등학교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도교육청 재구조화 등은 완료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등 40개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공방 재구조화, 독서·인문교육 강화, 학교폭력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학생해외연수 등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학교·지역·지자체가 협력해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약사업은 전북교육을 발전시킬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분야별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전국 빈대 피해 발생... 도, 확산 방지 나서

빈대 합동대응TF 구성·운영... 방제 역량 결집  
신속대응 위해 시군 보건소에 상담창구 개설

정부적 차원의 빈대 방제에 협력하고, 빈대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빈대 확산방지 TF팀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도의 방제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한다.

또한 빈대발생 신속대응을 위해 시군 보건소에 빈대 상담창구를 개설해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도의 빈대 방제 추진 현황과 효과적인 빈대 방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전라북도 빈대 합동대응TF를 구성, 소관부서별 시설 방제 등 빈대 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빈대 방제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빈대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빈대 방제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IMSIL-GUN 임실군 **축! 전주매일 창간**

# 천만 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갑니다